****

**선교 활동 보고**

**벼랑 끝에 선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**

카르멘 엘레나 디아즈는 고향인 엘살바도르의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.

"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배우고, 이주민을 섬기면서 제 삶이 변화했습니다"라고 카르멘은 말했다. "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, 당신을 변화시키고, 당신을 민감하게 만듭니다.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주제인지 깨닫게 해줍니다."

카르멘은 엘살바도르 개혁교회(IRCES)의 추방자 및 난민을 위한 이주민 사역을 조정하는 일을 돕고 있다. 높은 폭력 발생율, 정치적 불안정성, 높은 실업률, 빈곤의 심화를 겪는 엘살바도르에서 이주민들의 공포와 고통을 해결하려면,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.

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의 이주 문제, 옹호 및 선교를 담당하는 [장로교 세계 선교부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ministries/world-mission/)의 조셉 러스는 청년 시절인 2016년에 엘살바도르에 처음 방문했다. 현재 그는 카르멘 및 그녀의 동료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비폭력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를 줄이기 위한 평화 조성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.

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국내 실향민 및 귀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, IRCES는 사람들이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. 또한 커뮤니티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더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소득 창출의 기회도 제공한다.

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으로는 [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에](https://pma.pcusa.org/donate/make-a-gift/gift-info/PG999999/)대한 기부로 가능하다. 이  [특별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peace-global-witness/)은 금액의 절반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평화 증진과 세계 선교 노력에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. 25%는 교회 인근 지역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사용하고, 25%는 더 넓은 지역 차원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진다. (교회와 사역에서 헌금 일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하세요)

이 헌금은 또한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멕시코, 미국의 단체들이 모인 중앙아메리카 이주 선교 네트워크의 출범을 지원했다. 이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, 공공 정책, 지역 사회에서 사회 변화를 통해 폭력의 뿌리를 해결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.

이주 네트워크 출범과 같은 교육 및 기독교 증거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'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헌금'의 특징이다.

우리는 '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헌금'에 기부함으로써,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.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, 많은 것이 모입니다.

***기도합시다.***

*오 하나님, 당신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. 선교와 사역,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, 평화를 가져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여 주소서.* **아멘**.